

## ■ ( 언론 동향 ) 2021.6.10. "농기자재신문" 보도내용

### ○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 장기화로 비료업체 타격 심화

- 요소 44% 상승, 인산암모늄 50% 등 원자재가격 급등
- 해상운송료 3배 급등 등 업계 원가부담 심화
- 국내 사료가격 및 일본 농협 비료가격은 인상돼
- 농협, 무기질비료 납품가격 조정 통해 업체와 상생해야

본격적인 영농기에 비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꺾이지 않아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복수의 비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미국과 인도 등의 비료수입 증가와 중국의 자국내 비료 우선 공급 정책과 환경정책 강화 유지 및 염화칼륨 공급사 재고 소진 등으로 무기질비료의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적기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강세 당분간 지속될 듯

#### 요소 44%↑ 인산암모늄 50%↑ 해상운임도 3배↑

요소는 중국의 비료생산을 위한 원료부족 현상과 추비시즌 도래로 공급이 부족해졌고, 인도의 추가 대규모 입찰로 물량확보를 위한 수급 불안정이 커지면서 지난 6월 4일 FOB 395\$/톤은 지난해 11~12월 274\$/톤보다 44% 상승했다. 특히 중국의 요소 생산이 줄어들면서 6월초 요소가격은 5월달 대비 10%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염화칼륨은 옥수수과 콩 등 곡물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등 수요가 증가하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이 낮은 동아시아 물량은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수입가격은 6월 4일 CFR 288\$/톤으로 지난해 11~12월 235\$/톤보다 23% 상승했다.

글로벌 공급사들은 400~430\$/톤의 높은 가격수준으로 거래되는 브라질과 미국으로 물량 공급을 늘리고 있으며 반면에 동아시아는 275~300\$/톤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 상황에 놓여 원료확보의 어려움이 커졌다.

DAP(인산암모늄)도 중동의 암모니아 공장 가동정지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중국의 내수 공급 우선 정책, 인도와 남아시아·브라질의 수요지속으로 6월 4일 FOB 548\$/톤으로 지난해 11~12월 365\$/톤보다 50% 폭등했다.

특히, 중동지역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덴(Ma'aden) 공장이 폭발사고로 1개월간 가동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6. 10.(목)

정지 되면서 7~8월 암모니아 가격은 650~700\$/톤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돼 국제원자재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황은 6월 4일 FOB 178\$/톤으로 지난해 11~12월 82\$/톤에서 117% 폭등세를 보였다.

중국·호주간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석탄·철광석 물량 확보를 위한 선박 쏠림 현상이 커져 국제 해상운임이 약 3배 급등했다. 해상운임 상승은 철광석 수요과 곡물 운송이 증가했고 원유 시황 상승으로 연료유 가격상승에 따라 운임도 상승했으며, 아시아·북미간 컨테이너 수요 증가와 코로나 대비를 위한 검역으로 컨테이너선의 가동 저하로 운임이 크게 상승함과 운송 지연 발생 등으로 해상운임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사료업계 및 일본 농협도 비료가격 인상돼

한편, 올해초 사료업계도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압박으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원재료 비중이 원가에 85%인 사료업계는 지속되는 국제 곡물가 폭등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료가격 인상을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도 질소질비료의 기준이 되는 국산 요소에 대해서는 내외부 가격차의 축소를 요구하며 12.1% 인상, 수입요소는 24.0%, 황산암모늄은 10.4% 인상했다. 인산질비료인 과석과 중과석은 5.3%, 칼리질비료인 염화칼륨은 8.4% 인상했다.

또한, 국제시황이 급등한 인산암모늄(DAP)을 원료로 사용하는 복합비료 등은 대체로 10% 이상 인상됐으며 특히, 14-14-14처럼 DAP 사용이 많은 복비 등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5% 인상됐다고 알려졌다.

## 비료 생산업체 건의서와 노조 성명서 농협에 제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4월초 두차례에 걸쳐 6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농협과의 구매납품 계약서 제3조(계약단가 조정)에 의한 계약 후 90일 경과 후 계약단가가 ±3% 이상 변동시 계약단가 조정 근거에 따라 시급히 단가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비료연합도 4월 중순과 말경에 두차례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대폭 인상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추구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농협에 제출하는 등 자구책에 고심하고 있다.

비료업체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생산업체가 납품계약서에 따라 가격 인상을 농협중앙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협은 아직도 비료가격 인상 조정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http://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6. 10.(목)

## 농업경영비 중 무기질비료는 2.48%에 그쳐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가 가중된다는 것과 관련해 무기질비료가 농업경영비 중 차지하는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10년 3.17%에서 2019년 2.51%, 2020년에는 2.4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가에서 비료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주로 대체 비료로 사용되는 광물질인 유기농업자재, 제4종복비 및 미량요소인 영양제와 발근제 등 기능성비료의 구입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비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기질비료의 기능성·미량요소 등 품질향상과 무기질 비료와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작물의 재배환경과 토양조건 등에 맞게 균형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비료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해안 필요

국내 비료판매업은 1988년부터 자율화되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료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 당사자의 거래 약정 후에 공급조건, 납품단가 조정 등 계약조항들이 제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고 예측 가능한 거래질서로 자리잡을 수 있다.

농민 입장을 고려한다지만, 제조원가의 70%를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 업체로써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에도 농협에서 납품가격을 인상 조정하지 않아 막대한 영업손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기질비료 시장 수요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농협에서 구매납품 계약서에 약정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요 독점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무기질비료업계는 농협이 일방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창수 기자>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http://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